

남북 관계 회복세 지속

최 성 근 /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한반도 평화지수란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전체적인 평화의 정도를 계량화된 수치로써 나타낸 지수로서, 전문가들의 주관적 분석에 기초한 '전문가평가지수'와 객관적 통계 자료를 통해 조사된 '정량분석지수'로 구성된다.

2009년 4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를 조사한 결과, 남북 관계는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 분기에도 회복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2009년 4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41.0을 기록하였으며, 지난 3분기의 40.2에 비해 0.8포인트 상승을 나타냄으로써 남북 관계의 회복세를 이어갔다. 다음 분기의 기대지수는 50.8로 나타나 이러한 회복세는 또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북미 후속회담 및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 개최 노력, 그리고 대북 지원 및 교역량 회복 등의 요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4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남북 관계는 객관적인 실적에 기초한 정량평가에서는 호전된 반면, 인식에 기초한 전문가평가에서는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분석지수는 3분기 39.8에서 4분기 48.5로 크게 상승했으나, 전문가평가지수는 33.5를 나타냄으로써, 지난 분기 40.5에 비해 오히려 하락했다. 이는 보즈워스의 방북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라는 확실한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분기 북한의 유화 공세에 따른 남북 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대청해전의 발발과 미사일 발사 및 대북 옥수수 지원을 둘러싼 마찰 등이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남북 간 경제 및 사회·문화·인도적 관계가 정치·군사적 관계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호전되었다. 정량분석지수의 세부지표들을 살펴보았을 때, 경제 및 사회·인도 분야를 측정한 '교류지수'는 3분기 31.5에서 4분기 47.7로 크게 상승한 반면, 정치·군사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 지수'는 3분기의 48.1에서 4분기 49.3으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는 4분기 남북 교역이 2008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신종플루 치료제가 전달되는 등 경제 및 인도적 분야에서의 관계 개선이 이뤄진 반면, 정치·군사 분야에서는 북미회담 성사와 같은 호재들과 대청해전과 같은 악재들이 교차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상승 기조만 유지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북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5대 우선정책과제는 첫째, 남북 경험의 확대를 통한 신뢰회복, 둘째, 정상회담개최를 통한 남북 관계 개선, 셋째, 주변국 공조를 통한 6자회담 조속한 재개, 넷째, 대북 인도적 지원의 확대, 다섯째, 금강산·개성 관광의 재개로 나타났다. 특히, 대북 전문가들은 남북 경험의 확대를 통한 남북 간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았다. 이는 대북 전문가들은 남북 경험의 확대를 현실적으로 가장 용이하면서도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개요

한반도 평화지수란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전체적인 평화의 정도를 계량화된 수치로써 나타낸 지수이다. 이를 연구하는 목적은 남북 관계와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현재 남북 관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를 지수로 나타내는 여러 선행 연구들이 있었다.¹⁾ 기존의 평화지수들은 한반도 평화를 계량적으로 연구하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수들이 방법론적 측면에서 한 가지 측정법만을 채택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실제적으로 측정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진다.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기존의 측정법을 통합해서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평화지수들이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도록 하였다. 즉, 연구 방법에 따라 주관적 개념의 ‘전문가평가지수’와 실적 및 통계 자료에 기초한 객관적 개념의 ‘정량분석지수’를 통합하여 지수를 산출함으로써 각각의 방법이 지닌 한계점들을 상호 보완하도록 하였다.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0에서 100까지의 값을 갖도록 설계하였으며, 0에 가까울수록 대립과 위기 상황을, 100에 가까울수록 화해·협력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남북 관계를 5단계로 나누어 한반도 평화의 진전 혹은 악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²⁾

〈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구성 및 연구 방법 〉

| 구 분 | 연구 방법 |
|--------------------|---|
| 전문가평가지수 (주관적지수) | 한반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
| 정량분석지수 (객관적지수) | 남북한 정치·군사 부문과 관련된 각종 사건·사고 등의 이벤트데이터 분석과 남북한 경제와 사회문화 및 인도 부문의 동향데이터 분석 |

1) 한양대학교에서 연구된 ‘한반도 평화지수’, 서울대 평화연구소의 ‘남북통합지수’, 제주평화연구원의 ‘동북아 평화지수’, 세계평화포럼의 ‘세계평화지수’, 삼성경제연구소의 ‘한반도 안보지수’ 등이 있다.

〈 HRI 한반도 평화지수와 관계 범주 〉

| 관계 범주 | 내 용 | 지수 범위 |
|----------|--|---------|
| 평화·공영 관계 |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고 평화 공존 및 남북 평화체제가 서서히 수립되는 상태 | 80이상 |
| 화해·협력 관계 |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태 | 60~80미만 |
| 중립적 관계 | 남북 간의 대화와 갈등이 교차되는 상태 | 40~60미만 |
| 긴장 관계 |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어 상대방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 혹은 갈등이 발생하는 상태 | 20~40미만 |
| 적대적 관계 | 핵위기가 고조되거나 군사적 충돌이 심화되어 전면전으로 치달는 상태 | 20이하 |

① 전문가평가지수

전문가평가지수는 분기별로 한반도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산출하는 지수이다. 남북 간의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인도적 관계의 3가지 측면에서 분기별 남북 관계의 변화를 조사하여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설문은 5개 범주로 구성되어있으며, 설문 응답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변환한 뒤 설문을 통해 설정된 각 영역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를 산출하였다. 전문가평가지수의 특징은 남북 관계와 한반도 상황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이 지수에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을 기초로 기대지수³⁾를 함께 산출한다는 특징이 있다.

② 정량분석지수

정량분석지수는 분기별로 남북 관계와 관련한 객관적 지표들을 조사하여 산출

2) 제시된 관계 범주와 내용은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크기에 따라 한반도 평화의 정도가 현재 혹은 향후 대체로 어떠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참고자료이다. 따라서 HRI 한반도 평화지수를 구성하는 다른 세부지수들을 이 범주에 그대로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3) 전문가들의 향후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한 기대지수는 반드시 다음 분기의 한반도 평화지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보다는, 다만 현실점에서 본 단 기간 내의 남북 관계의 흐름 및 경향을 미리 파악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하는 지수이다. 동향 지표는 크게 정치·군사 영역(이벤트지수)과 경제 및 사회·문화·인도 영역(교류지수)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뒤 종합하여 지수를 산출하였다.

정치·군사 영역은 남북 간에 일어난 정치·군사 관련 주요 사건들을 분석하여 이벤트지수를 산출하였다. 기존의 이벤트데이터 분석방법을 기초로 하였으며, 남북 관계의 특성에 맞게 가중치와 범주를 수정하여 적용하였다⁴⁾ 기초 데이터는 「연합뉴스」와 통일부의 「남북 관계 일지」를 바탕으로 하였다.

경제 및 사회·문화·인도적 영역은 핵심 변수들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집계된 통계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수를 산출하였다. 시계열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기와 이전 4분기를 포함하여 총 5분기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매분기마다 이를 표준화(Normalization)하였다.⁵⁾ 그리고 표준화된 값을 분기별 평균값과 비교하여 그 차이에 따라 구간별로 0에서 100점까지 배점하였다. 기초 데이터는 통일부 발표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과 「남북협력기금」월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HRI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2009년 4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결과 41.0을 나타냄으로써, 지난 분기에 비해 다소 상승세를 보였으나 변화폭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지난 3분기 지수 40.2와 비교할 때 0.8포인트 상승함으로써, 남북 관계가 미세하게나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호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남북 관계는 여전히 불안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난 해 주변 국가들의 6자

4) COPDAB(Conflict and Peace Data Bank)나 WEIS(World Event Interaction Survey) 등의 기존의 이벤트 데이터 분석모델은 주로 통계적 분석을 위한 모델이므로 평화 지수 연구에 그대로 적용되기 힘든 점이 존재한다. 또한 이들은 일반적인 국제 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의 특수성이 지수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건의 강도에 따라 새롭게 11단계로 분류된 사건 범주와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5) 급변하는 남북 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분기별로 변수들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치를 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동평균법(Simple Moving Average)을 적용하여 해당 분기와 이전 연도를 포함 총 5분기 값의 평균을 매 분기마다 다른 평균치를 산출하였으며, 이 값을 기초로 표준화 작업을 시행하였다.

회담 재개 노력과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 및 북미 회담 재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6자 회담 복귀와 북핵문제 해결의 전망은 아직 불투명한 가운데 있음이 이를 말해 준다. 또한 남북 간의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이산가족 상봉 및 각종 인도적 지원까지 재개되었으나,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확실한 후속 성과들이 부재한 상황이다.

〈 2009년 HRI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

| 구분 | HRI 한반도 평화지수 | | | | | 기대지수 |
|-----|----------------|----------------|-----------------|----------------|----------------|----------------|
| | | 정량분석지수 | | | 전문가평가지수 | |
| | | | 교류지수 | 이벤트지수 | | |
| 4분기 | 41.0 (+0.8) | 48.5 (+8.7) | 47.7 (+16.2) | 49.3 (+1.2) | 33.5 (-7.0) | 50.8 (-3.0) |
| 3분기 | 40.2 | 39.8 | 31.5 | 48.1 | 40.5 | 53.8 |

그러나 전문가들의 기대지수는 50.8을 나타냄으로 2010년 1분기 남북 관계는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4분기 종합지수인 41.0과 비교할 때 0.8포인트 상향된 수치로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내년 초 남북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미 양자회담 이후, 후속 회담 개최 및 6자회담 전망이 밝아지면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신종플루관련 의약품지원의 신속한 지원과 함께, 정부의 인도적 지원 지속 의지 표명과 군통신선 현대화 지원, 그리고 2010년 정상회담개최에 대한 기대감 등이 향후 남북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낳은 것으로 평가된다.

2009년 4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남북 관계는 객관적인 실적에 기초한 정량평가에서는 호전된 반면, 인식에 기초한 전문가평가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정량분석지수는 3분기 39.8에서 8.7포인트 상승한 48.5를 기록함으로써, 지난 분기에 비해 남북 관계가 크게 호전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남북 교역이 증가되었고,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으며, 정부의 인도적인 지원과 군통신선 현대화 지원 및 개성 공단 임금 협상이 타결되는 등 남북 교류가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 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분기의 교류지수와 이벤트지수를 비교해 볼 때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분기 교류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47.7을 나타냈고, 이벤트지수는 49.3을 나타냄으로써 양자 사이에 1.6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교역의 확대, 인도적 지원의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벤트지수는 6자 회담을 위한 주변국의 노력과 북미회담 재개로 인해 상승세를 보였으나, 북미 간 후속회담 재개 전망 속에서 대청해전 등의 악재로 인해 소폭 상승하는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는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50포인트 선을 밀돌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는 전반적인 관계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전문가평가지수는 33.5를 나타냄으로써, 지난 분기의 40.5에 비해 크게 하락함으로써 남북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보여주었다. 전문가평가지수는 지난 분기와 비교할 때 7포인트나 하락하였으며, 이는 보즈워스 방북이 북한의 6자회담 재개 약속이라는 기대했던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데서 오는 실망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난 분기 남북 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이어지지 못하고, 남북정상회담이 재개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대청 해전의 발발과 대북지원에 있어서의 의견대립 등이 전문가들의 4분기 남북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평가지수 성향별 분석

한반도 및 남북 관계 전문가 총 88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 분석 결과, 전문가평가지수는 33.5, 기대지수는 50.8을 기록하였다. 전문가평가지수를 전문가의 성향에 기초하여 분석해 보았을 때 보수적 성향의 전문가는 현재 남북 관계를 다

〈 2009년 성향별 전문가평가지수 〉

| 구 분 | 보수 성향 | | 중도 성향 | | 진보 성향 | | 전문가 평가지수 | 기대지수 | HRI 평화지수 |
|-----|-----------------|----------------|----------------|----------------|----------------|----------------|----------------|----------------|----------------|
| | 현재 | 예상 | 현재 | 예상 | 현재 | 예상 | | | |
| 4분기 | 39.7 (-10.5) | 51.4 (-6.2) | 30.5 (-7.6) | 54.6 (+0.2) | 29.7 (-8.1) | 46.8 (-4.9) | 33.5 (-7.0) | 50.8 (-3.0) | 41.0 (+0.8) |
| 3분기 | 50.2 | 57.6 | 38.1 | 54.4 | 37.8 | 51.7 | 40.5 | 53.8 | 40.2 |

주 : 1) 3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2009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의 대북전문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함
 2) 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2009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의 대북전문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함

소 긍정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전문가는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의 전문가평가지수는 각각 39.7, 30.5, 29.7로, 보수 성향의 전문가는 진보 성향보다 상대적으로 남북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기조와 미국과의 대북 정책 공조 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은 핵문제 등과 연계된 대북 정책과 관계 개선에 소극적인 정부의 움직임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분기와 비교할 때 보수 성향의 전문가 평가가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중도 성향이 가장 낮은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대청해전 등의 발발, 그리고 북측의 통일부와 장관에 대한 지속적인 비난 등이 보수성향의 전문가들의 안보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크게 자극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중도적 성향의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의 부정적인 인식에는 동의하지만,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는 큰 변화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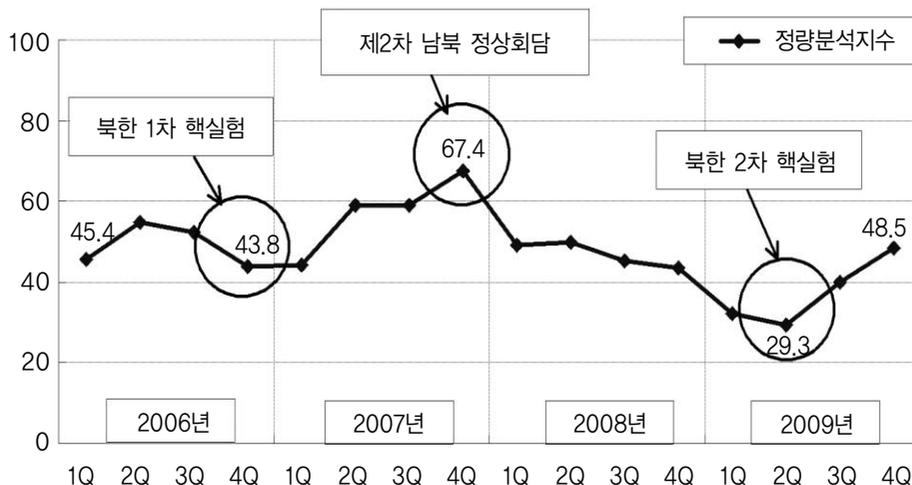
다음 분기에 대한 기대지수는 중도 성향이 54.6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진보 성향이 가장 낮은 46.8을 나타냈다. 이는 중도 성향일수록 안보적 이슈의 영향이나 혹은 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만요인이 적기 때문에 다음 분

기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진보적 성향의 전문가들의 기대지수는 46.8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임으로써 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다음 분기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량분석지수의 시계열 분석

정량분석지수는 2009년 2분기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냄으로써, 남북 관계는 회복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상반기 북한의 2차 핵실험 등으로 남북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으나, 이후 6자 회담 재개 노력과 남북 교역 회복 등으로 인해 남북 관계는 2008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에 6자 회담이 재개되고 북한 핵문제가 원만히 타결될 때, 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08년과 2009년 모두 지수가 50을 밑도는 양상을 나타냄으로써, 현재 남북 관계는 전반적인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 정량분석지수의 시계열 추이 (2006~20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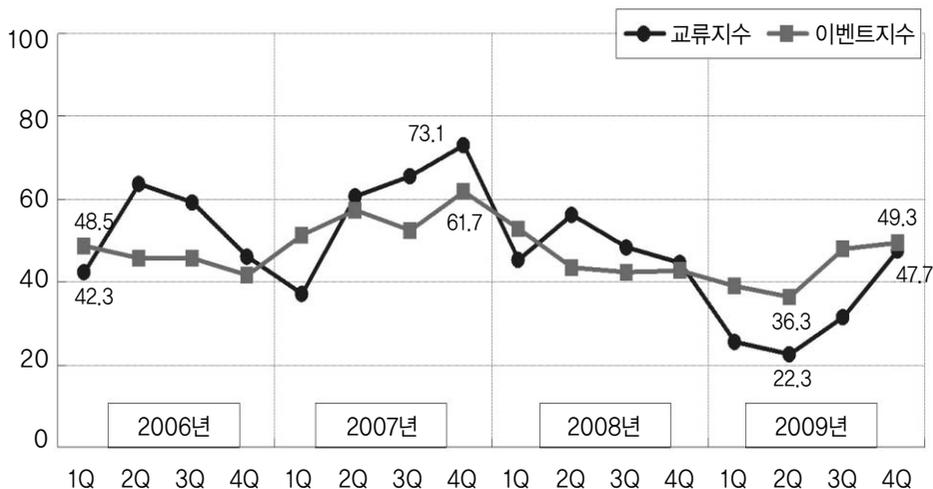
HRI 한반도 평화 지수

정량분석지수를 구성하는 교류지수와 이벤트지수는 모두 2009년 4분기에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특히 교류지수의 상승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2분기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는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가, 지난 분기와 이번 분기 연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냈다. 교류지수는 22.3에서 47.7로 2배 이상 증가세를 보였고, 이벤트지수도 상반기대비 10포인트 이상 증가하여 남북 관계 회복의 기미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류지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경제 및 사회·문화·인도 분야에서의 남북 관계의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4분기의 남북교역은 이미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이산가족 상봉, 군통신선 지원, 개성공단 임금 협상 타결 및 각종 인도적 지원 재개 등의 교류가 4분기 들어 활발하게 이뤄졌다.

정치 및 군사 분야도 대청해전과 단거리미사일발사 등의 악재가 있었지만 주변국들의 6자회담 재개 노력이 지속되었고, 보즈워스 방북으로 북미회담이 재개됨으로써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또한 남북 간 3차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물밑접촉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수가 상승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북

〈 교류지수와 이벤트지수의 시계열 추이 (2006~20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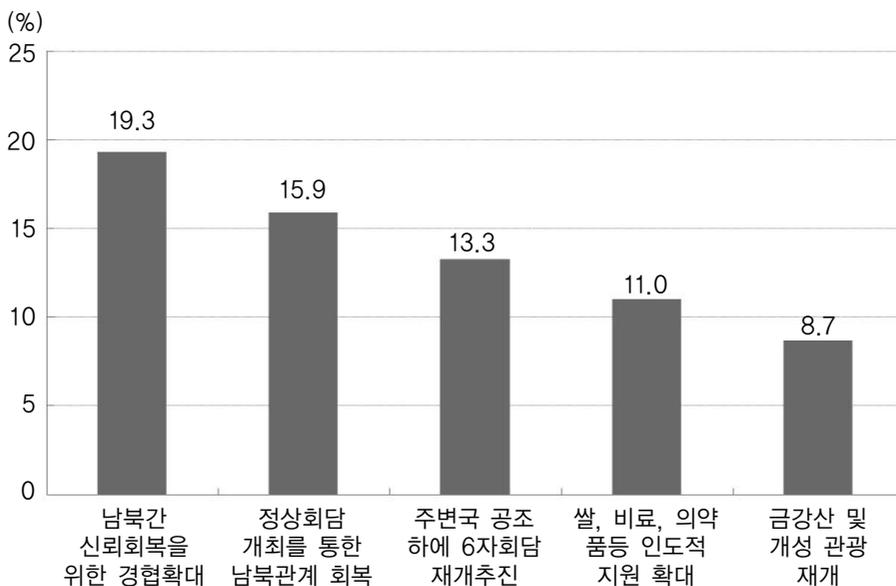


미회담과 정상회담 재개 노력이 확실한 후속성과 없이 끝남으로 지수는 소폭 상승에 그쳤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5대 우선 정책 과제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구해야 할 우선 정책 과제를 묻는 질문에서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경협 확대’가 전체 응답 가운데 19.3%로 다수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를 통한 남북 관계 회복’이 15.9%,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한 6자 회담의 조속한 추진’이 13.3% ‘쌀, 비료, 의약품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의 확대’가 11.5%, 그리고 금강산 및 개성 관광의 재개 8.7%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설문 결과 무엇보다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경협의 확대가 최우선 과제로 지적되었다. 이는 경협의 확대가 정치 군사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북 관계 회복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실용적이고도 용이한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기숙사와 탁아소 건립, 근로자 출퇴근 도로 건설, 3통(통행, 통신, 통관) 등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협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남북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 지난 분기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당국 간 비밀접촉이 이뤄졌으나 정상회담이 끝내 성사되지 못함으로써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2010년 그 어느 해보다 남북 관계의 회복이 기대되는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남북 간의 신뢰 관계 회복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는 급진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한 해결로 국제적인 여론이 조성된 만큼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최근 새로 임명된 중국대사를 통해 한중 관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중국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넷째, 쌀, 비료, 의약품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올해 북한은 지난해 작황이 좋지 않았던 이유로 극심한 식량난이 예상된다. 따라서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식량지원과 비료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난해 신종플루 발생 시에 치료제 지원 사례를 볼 때, 인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남북 신뢰 회복차원에서 의약품 지원 및 의료기구 지원 확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금강산·개성 관광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최근 북한이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제의해 온 만큼 당국 간 실무회담을 통해 조속히 관광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향후 백두산 등 북한 내 관광 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남북 관광 협력 확대 추진함으로써 남북 교류 활성화 및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도모하는 것이 현 시점에 추진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판단된다. **統**